

국 어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④

[규범] 띄어쓰기의 이해

[해설]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는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금란이의 나이는 '서른두 살'이라고 써야 한다. 참고로 아라비아 숫자로 적을 때에는 '32살 / 32 살' 둘 다 쓸 수 있다.

[오답]

- ① 기간을 나타내는 '지'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적는 게 맞다.
- ② 체언 뒤에 오는 '만큼'은 조사이므로 붙여 적어야 한다.
- ③ 나열을 할 때 쓰는 '들'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적는 게 맞다.

02. [정답] ②

[규범] 외래어 표기의 이해

[해설] '탈런트(talent), 앙케트(프 enquête), 커튼(curtain)'은 모두 외래어 표기법에 맞다.

[오답] 답선지의 단어 중 틀린 것만 고치면 다음과 같다.

- ① balance: 발란스 → 밸런스
- ③ sausage: 소세지 → 소시지
remote control: 리모콘 → 리모컨
- ④ Valentine Day: 발렌타인데이 → 밸런타인데이

03. [정답] ①

[어휘] 고유어의 이해

[해설] '탐탁하다'는 '모양이나 태도 따위가 마음에 들어 흡족하다.'의 의미를 가진 고유어이다. 주로 부정의 말과 함께 쓰여 '태도가 탐탁지 않다'와 같이 나타난다. 나머지는 모두 답선지의 설명이 옳다.

04. [정답] ④

[규범] 맞춤법에 맞는 표기

[해설] 받침이 ㄹ로 끝난 단어가 다른 말과 어울려 새로운 단어가 될 때 'ㄹ'이 'ㄷ'으로 변하는 현상이 있다. '잘+다랗다=잔다랗다'이므로 밑줄은 '잔다랗게'라고 해야 맞다.

[오답]

- ① 어미 '-길래/-기에'는 복수 표준어이므로 '생각했길래'는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 ② '금시(今時)에'의 준말은 '금세'로 표기한다.
- ③ '암+개'가 어울려 된 말은 ㅎ이 덧생기는 현상을 인정하여 '암개'로 표기한다.

05. [정답] ①

[문법] 음운 변동 현상의 이해

[해설] '미닫이'만 변동 현상인 구개음화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축약 현상에 해당한다.

[오답]

- ② 꽃향기[꽃향기 → 꼬향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ㄷ→ㄷ), 자음 축약(ㄷ+ㅎ=ㅌ)
- ③ 잡히다[자피다]: 자음 축약(ㅈ+ㅎ=ㅉ)
- ④ 먹히다[머키다]: 자음 축약(ㄱ+ㅎ=ㅋ)

06. [정답] ④

[문법] 자연스러운 문장의 파악

[해설] 호응도 자연스럽고 의미에도 문제가 없는 문장이다.

[오답]

- ① 왼쪽으로 좌회전하세요: 의미가 중복되었다. → 좌회전하세요.
- ② 나에 의해 구입됐다.: 번역 투의 문장이다. → 나는 새롭게 출간된 책을 구입했다.
- ③ 위치하고 있습니다.: 번역 투의 문장이다. → 화장실은 건물 바깥에 있다.

07. [정답] ③

[규범] 표준어의 이해

[해설] '장이'는 '미장이'처럼 기술자에게 쓰고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쟁이'를 쓴다. 따라서 '멋쟁이, 소금쟁이'와 마찬가지로 '점쟁이'로 표기한다. ③은 고칠 필요 없는 것을 잘못 고친 사례이다.

[오답]

- ①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이 없는 형태가 표준어이다.
- ② 어원이 인식되지 않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쓴다.
- ④ '한 톨 안에 두 쪽이 들어 있는 밤.'을 의미하는 단어는 '쌍동밤'이 표준어이다.

08. [정답] ④

[규범] 맞춤법에 맞는 표기

[해설] '벗겨지다'와 '벗어지다'는 구분해서 써야 하는 말이다. 특별히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것에는 '벗어지다'를, 의도한 행동이나 구체적 힘이 작용한 경우에는 '벗겨지다'를 쓰는데 전자의 예로는 '신발이 커서 자꾸 벗어진다 / 머리가 벗어진 노인'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바람이 불어 모자가 벗겨졌다.'가 있다. ④는 신발을 벗으려고 의도하는 상황이므로 '벗겨지다'를 활용해야 한다.

[오답]

- ① 받치다 : 어떤 물건의 밑이나 안에 다른 물건을 대다.
* 바치다 : 신이나 웃어른에게 드리다.
- ② 벌이다 : 일을 시작하거나 펼치다.
* 벌리다 : 둘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
- ③ 부딪치다 : '부딪다'를 강조해 일컫는 말.
* 부딪히다 : '부딪다'의 피동

09. [정답] ②

[규범] 표준발음의 이해

[해설] 겹받침 ㄹ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ㄹ], 그 외에는 [ㄱ]으로 발음되므로 '맑다[막따]'이다. 겹받침 ㄹ은 [ㄹ]로 발음되나 '밟다'와 '넓-'으로 시작하는 복합어만 [ㅂ]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넓둥글다[넙뚱글다]', '엷다[열:따]'이다. 겹받침 ㄹ은 [ㅂ]으로 발음하므로 '옳다[읍따]'가 표준발음이다.

10. [정답] ①

[문법] 합성어의 종류 이해

[해설]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 어말어미가 생략된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①과 같이 조사가 생략된 것(용쓰다-용을 쓰다)은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사의 생략은 우리말의 자연스러운 문법 현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오답]

- ② 부슬비: 부사(부슬)가 명사(비)를 수식했으므로 비통사
- ③ 겹뿔다: '겹다-뿔다' 사이의 연결어미가 생략되었으므로 비통사
- ④ 늦잠: 형용사 '늦다'의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된 채 명사를 수식했으므로 비통사

11. [정답] ①

[문학] 시조의 이해

[해설] 제시된 시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소반 위의 감이 고와 보이는구나
유자가 아니라도 품어갈 만 하다마는
품어 가도 반길 이 없으니 그로 인해 서러워 하는구나.

회고고사(오의 육적이 원술의 초청을 받아 잔치에 참가하였을 때, 모친을 생각하여 글을 품어 달아났다는 고사.)를 떠올리고 지었다는 이 시조는 감이 너무 고와서 어머니께 가져다드리고 싶지만 어머니가 없어서 그럴 수 없는 것이 서럽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조홍감'은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이고, 중장이 바로 회고고사를 인용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즉 風樹之嘆(풍수지탄, 효도하고자 할 때에 이미 부모를 여의고 효행(孝行)을 다하지 못하는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 형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 ② 自畫自讚(자화자찬):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함.
③ 髀肉之嘆(비육지탄): 능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한갓 세월만 보냄에 대한 탄식.
④ 尸位素餐(시위소찬):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녹(祿)만 받아먹는 일.

12. [정답] ③

[문학] 소설 구절의 이해

[해설] '저 사령 거동 보소'는 서술자가 독자를 고려하여 하는 말이다. 이는 판소리게 소설의 특징이 드러난 것으로 공연 중 관객에게 말을 걸던 흔적이 소설에 남은 것이다. ㉠은 글을 읽는 독자들이 '사령'의 행위에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오답]

- ① 서술자가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어사또의 마음을 서술하고 있다.
② 문맥상 발화자가 '어사또'이므로 자신을 '먼 데 있는 걸인'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명관(冥官), 정치를 잘하여 이름이 난 관리.'은 변 사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반어법으로 볼 수 있다.

[참고]

- * 관청색(官廳色) : 조선 시대에, 수령(守令)의 음식물을 맡아보던 구실아치. ≒관청빛.
- * 다담(茶啖) :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내놓은 다과(茶菓) 따위.
- * 육고자(肉庫子) : 육고에 속하여 관아에 육류를 바치던 관노(官奴).
- * 고인(鼓人) : =공인(工人). 조선 시대에, 악기를 연주하는 일을 맡아하던 사람. 악생(樂生)과 악공(樂工)이 있었다.
- * 승발(承發) : 지방 관아의 구실아치 밑에서 잡무(雜務)를 맡아보던 사람.
- * 사령(使令) : 조선 시대에, 각 관아에서 심부름하던 사람.
- * 차일(遮日) :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치는 포장.
- * 기치(旗幟) : 예전에, 군대에서 쓰던 깃발.
- * 군물(軍物) : 군대에서 쓰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 * 육각(六角) : 북, 장구, 해금, 피리, 태평소 둘로 이루어진 악기 편성.
- * 녹의홍상(綠衣紅裳) :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의 옷차림을
- * 나삼(羅衫) : 얇고 가벼운 비단으로 만든 적삼. (적삼-윗도리에 입는 홑옷. 모양은 저고리와 같다.)
- * 안전(案前) : 존귀한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의 앞.
- * 주효(酒肴) : 술과 안주.
- * 훈금(閤禁) : 관아에서 잡인의 출입을 금지하던 일.

- * 훗입맛 : = 뒷입맛, 뒷맛.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입에서 느끼는 맛. 또는 일을 끝마친 뒤에 남는 느낌.
'훗입맛이 사납겠다', 또는 '뒷맛이 쓰다'는 어떤 일이 끝난 다음에 남은 느낌이 좋지 않다는 뜻.

13. [정답] ④

[작문] 개요의 완성

[해설] ㄷ, ㄹ은 모두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적절하다. [오답]

- ㄱ. <본론 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실태>에 어울리는 내용이다.
ㄴ. <결론>에 어울리는 내용이다. 지원을 촉구하는 것은 '해결 대책'이 될 수 없다. 구체적 방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ㄹ. <본론 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실태>에 어울리는 내용이다.

14. [정답] ④

[문학] 갈래의 이해

[해설] 가전체는 소설의 전 단계로 설화와 소설을 잇는 교량적 역할을 했다. 따라서 '소설의 한 갈래'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은 조선 세조 때에 김시습이 지은 한문 소설 《금오신화》이다.

[오답]

- ① 가전체는 고려 중기 이후에 성행하였으며 대표 작가로는 임춘, 이규보 등이 있다.
② 사물을 의인화하여 교훈을 주는 갈래이다.
③ 사물의 전기문 형식으로 마지막에 작가의 평을 덧붙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15. [정답] ④

[비문학] 전개 방식의 이해

[해설] 글의 1단락에서 용어 '장르화'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

[오답]

- ① 익숙한 대상(풍속화)과 비교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② 장르화의 특성은 있지만 미적 효과의 분석과 가치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③ 글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16. [정답] ③

[어휘] 단어의 의미 변화 양상 이해

[해설] ㉠은 역사화 이외의 모든 그림을 지칭하는 것이고 ㉡은 역사화 뿐 아니라 초상화, 풍경화, 정물화 등을 모두 제외한 그림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의미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계집'도 원래는 여자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여자를 비하하는 의미로 쓰이므로 의미가 축소되었다고 하겠다.

[오답]

- ① 지갑 : 종이로 만든, 물건을 담는 작은 상자 → 가죽이나 비닐, 형겅 따위로 만든 것들도 포함 = 의미 확대
② 인정 : 벼슬아치들에게 몰래 주던 선물 →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심정 = 의미 이동
④ 영감 : 당상관(堂上官)에 해당하는 벼슬을 한 지체 높은 사람 → 남자 노인 = 의미 확대

17. [정답] ③

[비문학] 내용의 이해

[해설] 정치적 의사 결정은 다수결을 전제로 한다. 이는 다수가 합의한 쪽으로 의사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이지만 완전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겠지만 완전 합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답]

- ① 첫 문장에서 '정치적 의사 결정은 다수결과 강제성을 전제로' 한다고 나와 있다.
- ② 정치적 의사 결정은 다수결과 강제성을, 시장적 의사 결정은 완전 합의와 자발성을 원리로 한다.
- ④ 마지막 문장에서, 시장 기구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한 완전 합의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만일, 시장 기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다면 완전 합의가 제대로 도출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18. [정답] ②

[문학] 표현법의 이해

[해설] 밑줄 친 부분에는 역설의 한 방식인 모순형용이 사용되었다.
②에서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역설이 나타났다.

[오답]

- ① 감정의 이입: 화자의 슬픔이 산평의 울음에 이입되었다.
- ③ 직유: '늑(너)'를 '산새'에 비유하였다.
- ④ 대조: '번지'가 대조적으로 제시되었다.

19. [정답] ③

[문학] 시적 상황의 파악

[해설] 제시된 시조와 ③은 모두 '이별'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시조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우레같이 소리 나는 입을 번개같이 번뜩 만나
비같이 오락가락 구름같이 헤어지니
가슴 가운데 바람 같은 한숨이 안개 피듯 하는구나.

* 주제: 이별의 슬픔

③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형제로 세 사람의 몸이지만 한 몸처럼 가까이 지내다가
두 아우는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가.
날마다 해 지는 문밖에 서서 한숨을 못이겨 하노라.

* 주제: 헤어진 형제를 그리워함

[오답]

- ① 오늘도 날이 밝았다 호미 메고 가자구나 / 내 논 다 매거든 네
논도 좀 매어 주마 / 오는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구나.
* 주제: 근면성실과 상부상조
- ② 입신양명을 이루지 못하고 쓸데없는 몸이 되어 / 오십 년 세월을
해온 일 없이 지냈구나 / 두어라 어느 곳의 청산이야 날 꺼릴 줄이
있으랴. *주제: 자연 귀의
- ④ 고개 넘어 성 권룡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어제 듣고 / 누워
있는 소를 발로 박차 언치 놓아 올라타고 / 아이야, 네 권룡 계시나
정 좌수(화자) 왔다 일러라. *주제: 향촌 생활의 흥취

20. [정답] ①

[한자] 한자의 파악

[해설] '시장권'은 '시장 지역'의 의미이므로 '市場圈(저자 시, 마당
장, 우리/지역 권)'을, '학군'은 '지역별로 설정한 학교의 무
리'를 의미하므로 '學群(배울 학, 무리 군)'을, '소원'은 '사이
가 멀다'란 의미이므로 '疏遠(소통할 소, 멀 원)'을 쓴다.

[오답]

學君(배울 학, 임금 군): 공부하는 임금

所願(바 소, 원할 원): 원하는 바

영 어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③

[단어속어정리]

blandish [blændɪʃ] v. 아첨하다, 감언으로 설득하다

coax [kəʊks] v. 감언으로 설득하다(=cajole, implore, induce, persuade)

cheat ~ into ~를 속여 ...하게 하다

[해석]

그는 그의 친구에게 알랑거려 그의 회사 물건을 사게 했다.

02. [정답] ②

[해설]

빈칸 전후의 내용이 모두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단어를 고르면 되겠다.

[단어속어정리]

eliminate [ɪlɪmɪneɪt] vt. 제거하다

currency [kʌːrənsi, kʌr-] n. (화폐의) 통용, 유통, 통화, 화폐
contribute to ~에 기여하다

underlying [ʌndərlaɪɪŋ] a. 기초가 되는, 근원적인(=fundamental)

monetary [mənətəri, mʌn-] a. 화폐의, 금전(상)의, 금융의

muddle [mʌdl] v. 혼잡하다, 혼란시키다

integrate [ɪntəgrɪt] v. 통합하다(=unify)

transpire [trænspraɪə : r] v. 증발[발산]하다,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exacerbate [ɪgzæsbəreɪt] vt. (고통·병·노여움 따위를) 악화시키다, 격분시키다

[해석]

유로화 자체가 주요 경제적 대가를 제공했다. 즉 유로화가 환을 위험을 제거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췄으며 유로 존 내의 무역을 증가시켰고 그리고 유럽 금융 시장을 더욱 단단히 통합시켰다. 더욱 보편적으로 단일 통화가 유로 존 내의 금융 안정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기저 문화에 기여했는데 이는 오늘 토론에서 간과했던 중요 포인트다.

03. [정답] ②

[단어속어정리]

overbearing [əʊvərbɛərɪŋ] a. 거만[오만]한, 건방진, 지배적인
domineering [dəmɪnɪərɪŋ / dɒmɪnɪər-] a. 권력을 휘두르는, 오만한(=arrogant)

be accustomed to ~에 익숙하다

native [ˈneɪtɪv] n. 원주민, 토착민

ability [əbɪləti] n. 능력, 할 수 있는 힘, 솜씨, 재능

culpability [kʌlpəbɪləti] n. 꾸중 들어야 할 일, 유죄

domesticity [dəmestɪsɪti] n. 가정적임

deference [dɛfərəns] n. 복종, 존경, 경의

[해석]

그는 원주민들에 의해서 병사들에게 보여지는 존경에 익숙해지자 대단히 거만하고 오만해졌다. 그는 권한 의식을 새로이 즐기게 되었다.

04. [정답] ②

[해설]

① after를 전치사로 보고 이후에 동명사 leaving을 취한 것으로 보면 되겠다. 물론 leave는 타동사이므로 다음에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

어를 받은 것이다.

② was 동사의 주어는 A number of photographers and a press motorcyclist가 되고 있다. 고로 단수가 아닌 복수로 해야 한다. was를 were로 한다.

③ 과거분사로 쓰여 앞의 명사 an official inquiry를 수식하고 있다. by를 통해서 수동, 즉 과거분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and로 인해 asked가 앞의 filed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filed가 과거로 쓰였으므로 asked도 과거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어속어정리]

chauffeur [ʃəʊfə, ʃəʊf : r] n. (주로 자가용차의) 운전사

file a civil action 민사소송을 제기하다

violation [vəɪələʃən] n. 위반, 침해

[해석]

다이애나, 도디 그리고 운전기사 앙리 폴이 리츠 호텔을 나간 후 S280 메르세데스가 파리 몽들라마 터널에서 충돌사고를 일으켜 사망했다. 보디가드 Trevor Rees-Jones는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다. 많은 사진 기자들과 언론사 오토바이 운전사가 조사를 받았다. 프랑스 검찰은 Judge Herve Stephan의 지휘 아래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도디의 아버지 Mohamed al Fayed는 파리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수사 범위를 넓혀 도디와 다이애나에 대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 혐의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05. [정답] ③

[해설]

① 'the world's+최상급'의 형태로 '세계에서 가장 ~한'의 의미를 전달한다.

② if가 있는 것으로 볼 때 가정법과과거형으로 쓰인 절이다. 즉 if S were~의 형태로 가정법과과거형을 이루고 있는데 바로 뒤의 we'd win으로 볼 때 가정법 과거형으로 한 것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being을 was로 한다. 즉 이 문장에는 동사가 없다. Having~이 주어이고 being이 동사가 돼야 하므로 being을 was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grow up은 사역동사 have에 걸리는 원형부정사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바로 이 부분이 함정이 되는 것이다.

④ 전치사로서 다음의 명사 our surroundings를 목적어로 하고 있다.

[단어속어정리]

introverted [ɪntroʊv : rɪd] a. 내성적인(=introvert)

extroverted [ɛkstroʊv : rɪd] a. 외향적인, 사교적인(=extrovert)

[해석]

우리는 가장 흥미로운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나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희한한 가족을 놓고 경쟁을 벌일 수 있으며 만일 이에 주어지는 상이 있다면 우리가 이 상을 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성장하는 것은 볼 수 있는데 이는 흔한 일이다. 한국인이 아랍 세계에서 자라는 것은 다른 어떤 곳에서 한국인이 사는 것보다 덜 흔한 일이다. 나는 항상 내 누이들에게 양쪽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우리가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대단히 내성적인 될 수도 있었으며 또는 우리는 대단히 외향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06. [정답] ①

[해설]

(ㄱ) 여기의 but은 앞의 주어+동사 즉 Older siblings are~와 연결되는 것이므로 but이하도 주어+동사의 구조를 지녀야 한다. 고로 having을 have로 해야 한다.

(ㄴ) 명사 ability가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o부정사를 취한 것은 옳다.

(ㄷ) create 동사의 주어는 복수명사인 even small differences가 되는 것이므로 복수동사 create를 사용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ㄹ) give 동사의 주어는 단수명사인 one inch가 되는 것이므로 gives로 해야 한다.

(ㄷ) Eli's는 Eli's game를 소유대명사 형태로 줄인 것이다. 즉 앞의 his game과 비교해서 Eli's game이 되는 것인데 이때 반복되는 game을 생략하고 Eli's로 한 것이다.

[단어숙어정리]

sibling [ˈsɪblɪŋ] n., a. (보통 pl.) 형제(의), 자매(의)

measurably [ˈmeɪz-ə-rə-b-ə-li] ad. 눈에 띄게, 뚜렷이

have a quick grasp of ~을 빨리 이해하다

writerly [ˈraɪtə : rli] a. 작가의

intuit [ˈɪntju(:)it] v. 직관(直觀)으로 알다[이해하다]

cascade [kæskæɪd] n. v. (작은) 폭포, 폭포가 되어 떨어지다

compare A to B A를 B와 비교[비유]하다

edge [edʒ] n. 끝머리, 테두리, (칼 따위의) 날, 우세, 강점

stature [ˈstætʃə : r] n. (특히 사람의) 키, 신장

make a [the] difference 차이를 낳다, 효과를 내다, 영향을 미치다, 중요하다

[해석]

우리, 아니 하여튼 나는 많은 것을 배운다. 우리가 듣기로 형과 누나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지만 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당히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즉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바람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작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클루거는 부모들이 만든 작은 차이도 폭포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동생에 대한 형과 누이들의 작은 이점을 형인 Peyton Manning의 1인치 더 큰 키가 자사의 게임에 동생 엘리보다 나은 주는 이점을 비교했다.

07. [정답] ④

[해설]

what brought you here?라는 말은 '무슨 일로 왔느냐?, 왜 왔느냐?'의 의미가 된다. 고로 '책을 가지고 왔다'고 답하는 것은 상당히 어색하다.

[단어숙어정리]

not really 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

under the weather 몸이 좋지 않은, 건강이 좋지 않은

[해석]

① A: 요즘 수잔 자주 만나니?

B: 별로. 일이 너무 바빠서 말이야!

② A: 아무래도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B: 그래? 그럼 그냥 집에 있어.

③ A: 차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B: 얼마 드려야 되죠?

④ A: 무슨 일로 오셨죠?

B: 책을 몇 권 가지고 왔습니다.

08. [정답] ②

[해설]

Let's call it a day는 "오늘은 이것으로 그만 하자"는 의미가 된다. 고로 B가 "내가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답이 되는 것이 옳겠다.

[단어숙어정리]

live on borrowed time (노인이나 병자가) 기적적으로 살아 남다, 덤으로 살다

that's all for today 오늘에 해당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오늘은 이걸로 그만 하자

pick up 다시 시작하다, 차를 태워주다, 물건을 사다, 수거하다, 모금하다

leave off 그만두다, 더 이상 입지 않다

[해석]

A: 오늘은 그만하자.

B: 하지만 아직 이 장을 다 끝내지 못했는데.

A: 알지만 나 피곤해. 오늘은 그만하자.

B: 좋아. 내일 오늘 끝낸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보기해석]

① 직장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

③ 지금까지만 해도 오래 버틴 거야.

④ 시간을 내서 친구들을 봐야지.

09. [정답] ④

[해설]

① let 동사의 주어로 동명사 Returning~을 잡은 것이 어색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let이 사역동사인 데 동사의 원형이 아닌 과거형의 realized를 사용한 것은 잘못이다. 또한 '20년 만에'라는 것은 '20년 동안의 부재 후에'가 되는 것이므로 전치사 in을 사용한 것도 잘못이다. complete도 부사 completely로 해야 한다. 동사 changed를 수식하기 때문이다.

② when절이 과거일 때는 주절의 시제가 현재완료로 될 수 없다. 즉 when절이 부사절로서 과거를 담고 있을 때 주절의 시제는 반드시 과거를 포함하는 시제가 돼야 한다. 현재를 포함하는 시제는 될 수 없다.

③ return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it이 되는 형태이므로 답이 될 수 없다. 물론 형용사 complete도 부사 completely로 해야 한다.

④ when절이 과거이므로 주절의 시제도 과거가 되었고 또한 realized가 that절을 취한 것도 옳으며 그리고 '깨달은 것'보다는 '모든 것이 변한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완료 had changed로 한 것도 옳다.

10. [정답] ②

[해설]

① cattle는 자체로 복수형이므로 cattles라고 하지 않은 것은 옳다. 또한 have in common의 형태로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므로 바르게 쓰인 것이다.

② rose는 자동사 rise에서 나온 것이므로 다음에 목적어를 취할 수 없다. 즉 타동사 raise로 해야 한다. as though[as if]가 가정법을 취해서 조동사 might를 사용한 것은 옳다.

③ '~에 익숙해지다'의 get used to의 표현을 묻고 있다. 바르게 쓰였다.

④ information은 불가산명사이므로 관사나 복수형으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including은 전치사로 '~을 포함해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11. [정답] ③

[해설]

첫 문장에서 느끼는 바와 같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later life가 된다. 즉 노년의 결혼 생활에 관해 언급하고 있고 이를 좀 더 좁게 말하자면 '노년의 결혼 생활 만족'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핵심어에 해당하는 later life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지문이다.

[단어숙어정리]

transition [ˈtrænzɪʃ-ən] n. 변이(變移), 변천

marital [ˈmærɪtl] a. 혼인의(=matrimonial), 부부간의

enhance [enhæns] v. 향상하다, (가치·능력·매력 따위를) 높이다

stem from ~에서 나오다

[해석]

노년의 부부는 자녀들이 집을 떠나고 은퇴를 하고 손자들이 태어나면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 이전 연구에서 결혼의 만족이 U자 형이 곡선을 그리는 경향이 있는데 초기 그리고 후반기에서 결혼 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중반기(그리고 대개 부모의 시기) 동안에는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 자녀들이 사회로 나간 이후

에는 부부가 서로 함께 보낼 시간이 더 많고 사생활도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며 금전적 자산도 더 많이 갖게 된다. 노년의 부부들 사이의 관계는 평생 함께 한 역사와 경험으로 인해 더욱 좋아질 수 있다. 일부 연구원들은 노년의 결혼 만족 증가가 대체로 자녀들의 사회 진출과 은퇴에서 나오는 부모 그리고 직장에 대한 책임감의 감소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보기해석]

- ① 결혼 생활의 고통스런 추억
- ② 노인들의 골치 아픈 결혼 생활
- ③ 노년의 결혼 생활
- ④ 결혼 생활의 기복(변동, 부침)

12. [정답] ④

[해설]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다. 즉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어속어정리]

territory [térətò : ri / -t-əri] n. (영해를 포함한) 영토, 영역
previous [prí : viəs] a. 앞의, 이전의
ultimately [ʌltəmitli] ad. 궁극적으로, 마침내
adjust to ~에 적응하다
keep in mind 명심하다
relentless [riléntlis] a. 가차 없는, 잔인한
be content with ~에 만족하다
efficiently [ifíjəntli] ad.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석]

당신은 미지의 분야로 당신 자신을 밀어 넣기 보다는 행복하지는 않지만 낮은 상황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과거에 반해 있는 것이다. 앞의 예에서 보았듯이, 록펠러의 Standard Oil Company도 같은 딜레마 즉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 그들은 미지의 것에 도전하기 보다는 오히려 익숙한 것에 충실해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당신은 그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해야 한다. 성취와 성공의 가장 무정한 적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보기해석]

- 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라
- ②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라.
- ③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
- ④ 가능한 한 빨리 변화에 적응하라.

13. [정답] ③

[해설]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문장 모두 plants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단어속어정리]

creative [kri : éitiv] a. 창조적인, 독창적인
significantly [signífikəntli] ad. 상당히
enhance [enhəns, -há : ns] v. 향상하다, (가치·능력·매력 따위를) 높이다
productivity [pròudaktíveti, pràd- / pròd-] n. 생산성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photosynthesis [fòutousinèesis] n. 광합성(光合成)
refreshment [rifréjmənt] n. 원기회복, 기분을 상쾌하게 함, (가벼운) 음식물, 다과

[해석]

한 미국 연구에 따르면 살아 있는 식물은 창의적인 사고를 늘려준다고 한다. 컴퓨터가 아니게 살아 있는 식물들을 가까이 두어라. 다른 연구

에서도 식물은 직장 내 스트레스를 상당히 낮춰주고 생산성을 높여준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광합성을 하는 가운데 공기에서 산소를 더 많이 방출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보기해석]

- ① 오전 내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일정에 넣어라.
- ② 약간의 다과로 하루를 시작하라.
- ③ 신선한 꽃이나 식물을 직장 내에 두어라.
- ④ 회사 내에서 건강한 하루를 위해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도록 하라.

14. [정답] ①

[해설]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다. 그러나 본문에서 design이나 mock이라는 단어를 문제의 힌트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즉 mock과 mimic는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단어속어정리]

habitat [hæbətæt] n. 서식지
creep [kri : p] vi. 기다, 살금살금 걷다
lurk [lə : rk] vi. 숨다, 잠복하다
exhibit [igzibit] n. 전람, 전시
mock [mæk / mɔ(:)k] v. 조롱하다, 흉내 내다, 모방하다(=mimic)
simulation [simjələiʃ-ən] n. 가장, 속임, 모조품, 가짜 물건
canyon [kænjən] n. (개울이 흐르는 깊은) 협곡
waterfall [wó : tə : rfò : l, wát-] n. 폭포
have in common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vegetation [vèdʒətéiʃən] n. 식물
immersion [imé : rʃən, -ʒən] n. 몰입, 열중
mimic [mímik] vt. 흉내 내다
a wide variety of 대단히 다양한

[해석]

시애틀의 우드랜드 파크 동물원에 있는 재규어의 서식지는 이 고양이과 동물들이 나뭇가지로 기어 들어가서 방문객의 머리 위에 진치고 있을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샌디에이고 동물원의 “원숭이 전용” 전시실은 아시아의 열대우림을 모방하고 있는데 쓰러진 나무줄기까지 똑같다. 그리고 볼티모어에 있는 자연 수족관에는 호주의 강의 협곡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폭포까지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전시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전시들이 모든 비슷한 기후 지역에서 온 다양한 동물들과 식물들을 한 곳에 모아서 야생에서처럼 상호작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런 종류의 전시는 “풍경 몰입”이라 불리는 것으로 동물들의 자연서식지를 모방한 것이다.

15. [정답] ③

[해설]

일반화의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문이다. 취재한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시위현장에 갔었다는 항의 편지를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옳겠다.

[단어속어정리]

turn in 제출하다
concrete [kánkri : t] a. 구체적인
ask for ~을 요청하다
scores of 수십의

[해석]

당신이 동물들의 권리를 위한 시위를 취재하는 기자라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2시간 이내에 기사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으며, 그래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알 필요가 있다. 현장으로 급히 달려가, 당신은 그들을 인터뷰하면서 이유를 묻기 시작한다. 당신이 인터뷰하는 처음 3명의 시위자들이 당신에게 근본적으로 동일한 이유를 낸다면, 당신은 다른 3,000명도 또한 그 이유 때문에 거기에 있을 거라고 가정할 수 있다. 불행히도, 당신의 기사가 나갈 때, 당신

의 편집장은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항의자들부터 수십 통의 편지를 받는다.

16. [정답] ④

[해설]

빈칸 바로 앞에서 climate change deniers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즉 이 글은 문두에서 Hansen이라는 사람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증거로 지구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후 however 부분에서는 지난 2008년에 발표한 자료에서는 지난해가 가장 추운 해였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바로 이런 발표가 지구 온난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지구 온난화는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어속어정리]

strident [straɪd-ənt] a. 귀에 거슬리는, 집요한, 귀찮은
stem from ~에서 유래하다

relay [ri : lei, riléi] v. —(전언(傳言)·공 따위를) 중계하다, 제공하다

institute [ɪnstətjù : t] n. 협회, 학회 (society), 연구소

anonymous [ənɒnəməs / ənɒnə-] a. 익명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brownstone [braʊnstəʊn] n. 적갈색의 사암(砂岩)(고급 건축용), 그것을 사용한 건축물

Antarctica [æntɑ : rktikə] n. 남극 대륙(the Antarctic Continent)
go through (~을) 지나다, (서류 등을) 잘 조사하다, 복습하다, 경험하다

unambiguous [ʌnæmbɪɡjuəs] a. 모호하지 않은, 명백한

doubtless [daʊtlis] ad. 의심할 바 없이, 틀림없이

seize on 꼭 쥐다, (기회·구실 등을) 포착하다, 잘 이용하다, (생각 등이) 사로잡다

hoax [houks] n. 사람을 속이기, 날조

reminder [rɪmaɪndə : r] n. 생각나게 하는 사람[것]

ongoing [ɒŋɡəʊɪŋ, ɔ(:)n-] a. 전진하는, 진행하는

[해석]

한센의 즉각 조치에 대한 집요한 요구는 우리 지구가 변하고 있다는 그의 특별한 관점에서 나오고 있다. 그와 그의 직원들은 위성과 남극에 위치한 기지를 포함해서 전 세계 수 천 개의 사이트에서 콜롬비아 대학 근처에 위치한 이름이 없는 건물인 그 연구소로 보내진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구가 1970년 이후로 기온이 0.6C 상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1997년과 2008년 사이 10년 이 가장 더웠다는 것이다. 그는 지구가 위험할 정도로 과열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 한센은 20세기 기준으로 볼 때 아직도 어운 것이지만 지난해는 금세기 들어 가장 더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2008년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한센을 유독 싫어하는 기후 변화를 부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연히 이용될 것이고 지구 온난화는 속임수라는 증거로 활용될 것이다.

17. [정답] ①

[해설]

내용일치 문제라기보다는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다. 이 글의 주제는 첫 문장에 있다. 즉 일본이 미얀마의 부채를 탕감해주기로 했다는 내용의 글이다.

[단어속어정리]

take steps to+V ~하려는 조치를 취하다

forgive [fə : rgɪv] v. 용서하다, (빚 따위를) 탕감하다

resume [rizú : m / -zjú : m] v. 되찾다, (건강을) 회복하다, 다시 시작[계속]하다

full-fledged [fúlflédʒd] a. 깃털이 다 난, 자격이 충분한. 완전한, 전폭적인

make an announcement ~~~을 발표하다

following [fɒləʊɪŋ / fál-] prep. ~에 이어, ~의 뒤에

junta [hú(:)ntə, dʒʌntə, hʌn-] n. (특히 혁명정권 수립 후의) 지도

자 집단, 군사 정권

nominally [námənli / nóm-] a. 명목상, 이름뿐으로

civilian [sɪvɪljən] a. 일반인의, 민간의

sweeping [swí : piŋ] a. 광범위한, 포괄적인, 철저한

prominent [prámənənt / próm-] a. 현저한, 두드러진, 저명한

parliamentary [pà : rləméntəri] a. 의회의

by-election, bye- [baɪɪlɛkʃən] n. 중간 선거, (국회 등의) 보궐 선거
urge+목적어+to+VG ~에게 ~할 것을 촉구하다

hose arrest 가택 연금

exempt [ɪgzémt] vt. (의무 따위를) 면제하다

[해석]

일본은 미얀마의 민주 경제 개혁을 지원하는 방법의 하나로 약 3천억 엔 즉 37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하고 전면적인 개발 지원을 재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토요일에 말했다. 정부는 메콩 강 지역 5개국 지도자들과의 정상 회담에 이어 일본 수상 요시히코 노다와 미얀마 대통령인 U Thein Sein와의 회담 직후 이런 사실을 발표했다. 미얀마 국방 정권은 지난 해 명목상 민간 정부에 권력을 넘겼고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최고의 민주 운동가인 아웅산 수치가 최근에 있는 의회 중간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저명 정치범들을 석방하는 등 전면적인 정치 경제 개혁을 내놓아 세상을 놀라웠다. 버마로도 알려진 미얀마는 과거 차관으로 일본에 약 5천억 엔 즉 600억 달러를 빚지고 있다.

[보기해석]

- ① 일본은 미얀마에게서 개혁 지원을 위해 부채를 면제해 줄 것이다.
- ② 미얀마 최고의 민주 운동가인 아웅산 수치가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
- ③ 군부가 현재 미얀마를 장악하고 있다.
- ④ 일본은 미얀마에 철저한 정치 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8. [정답] ②

[해설]

이 글은 중국이 영화 타이타닉의 한 누드 장면을 삭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내용이다. ①의 내용은 첫 번째 문장으로 유추할 수 있고 ③는 마지막 문장에서 officials did not tamper with the scene와 관련된 내용이며 ④의 경우는 두 번째 문장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②의 경우는 글의 주제와도 거리가 먼 내용이 된다.

[단어속어정리]

notorious [nɒtɔ : riəs] a. (보통 나쁜 의미로) 소문난, 유명한

censorship [sénsərʃɪp] n. 검열

have nothing to do with ~와 관계가 없다

controversial [kɒntrəvɜ : rʃəl / kòn-] a. 논쟁의, 논쟁을 즐기는
tamper with 참견하다, 함부로 고치다, 주무르다

conventional [kənvenʃənəl] a. 전통적인

take issue with ~와 다투다, ~에게 이의를 제기하다

with no strings attached 아무 조건 도 없이

[해석]

중국의 최근의 수치스런 검열 사건은 정치와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그것은 케이트 윈슬렛의 영화 타이타닉의 15년 된 누드 장면과 관련한 것이다. 4월 10일에 이 영화 3D 판이 이 누드 장면을 빼고 중국에서 개봉되었다. 중국 정부가 그 장면을 삭제하기로 한 결정을 더욱 논란이 되게 한 것은 이 영화의 종전 오리지널 판이 1998년 중국에서 개봉되었을 때는 당국이 이 장면을 고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기해석]

- ① 중국은 정치 검열을 해온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여겨진다.
- ② 중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3-D 판을 개봉하기로 했다.
- ③ 1998년 중국은 그 누드 장면을 문제 삼지 않았다.
- ④ 영화 “타이타닉”은 15년 전에 처음 개봉되었다.

19. [정답] ②

[해설]

문두의 Turtles like most reptiles require a specific diet~ 내용에
 ②가 위배된다. 즉 specific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것이므로 ‘아무런 먹이나 먹는다’는 것은 아니다.

[단어속어정리]

rewarding [riwɔ : rdiŋ] a. 가치가 있는, 보람이 있는, 보답하는
 far from 결코 아닌

reptile [réptil, -tail] n. 파충류의 동물

specific [spisifik] a. 특유한, 특수한, 독특한(=peculiar)

depending upon ~에 따라

well informed 잘 아는

as to ~에 관해

maintenance [méint-ənəns] n. 유지, 보존, 정비

dietary [dáiətəri / -təri] a. 식사의, 음식의

look out for 대비하다, 경계하다

be aware that S+V ~을 알다, 인식하다

crucial [krú : ʃəl] a. 결정적인, 중대한

expecting 임신 중인, 아이를 낳을 예정인

[해석]

애완 거북이를 기르는 것은 재미있고 보람된 경험이 될 수 있다. 거북이는 하루 종일 가만히 누워 있고 수영만 하는 것처럼 보여 크게 손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의 파충류처럼 거북이는 나이와 종류에 따라 특이한 먹이와 생활환경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주인은 적절한 탱크 관리, 필요한 먹이, 제대로 된 관리, 그리고 경계해야 할 건강 문제 등에 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만일 당신의 새 거북이가 이상적인 환경에서 길러진다면 이 애완동물을 아주 오랫동안 기를 수 있어 어떤 애완 거북이는 100년 넘게 산 것으로 알려진 적도 있다. 애완 거북이를 사려는 사람은 애완 거북이가 흔히 가지고 있는 살모넬라 균을 퍼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거북이를 만지고 난 뒤 매번 손을 씻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애완 거북이를 임신부가 있는 집이나 어린 아이가 있는 집, 그리고 노인들, 또는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집에서는 길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보기해석]

- ① 애완 거북이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 ② 애완 거북이는 주는 먹이는 어떤 음식이든 잘 먹는다.
- ③ 만일 애완 거북이에 특별한 관리를 하면 아마 100살도 살 것이다.
- ④ 임신부가 있는 집에서는 애완 거북이를 길러서는 안 된다.

20. [정답] ④

[해설]

대학에 다닐 때 화석 수집을 했다는 내용은 없다.

[단어속어정리]

allegedly [ələdʒdli] ad.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소문[전해진 바]에 의하면

be based on ~에 근거하다

be told that S+V ~라는 말을 듣다

janitor [dʒəˈnətər] n. 문지기, 수위

specimen [spésəmən] n. 견본(sample), (동식물의) 표본

[해석]

Roy Chapman Andrews는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 주인공의 바탕이 된 실제 인물이라고 한다. 어렸을 때 그는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모험가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그는 자신의 일대기에 썼다. 1906년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 Roy는 뉴욕시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주최한 교내 전시에 참석하였다. 그 전시에 굉장히 고무되어 그는 바로 그 박물관에서 일자리를 찾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다는 말을 듣고 Andrews는 바닥을 걸레

질하는 청소부로 일을 시작했고 박물관을 위해 표본 수집을 시작했다. 1920년 그는 고비 사막으로 화석 탐사 팀을 이끌고 갔으며 그의 팀은 처음으로 공룡 알을 발견했다.

[보기해석]

- ① 영화가 그의 실제 삶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 ② 그는 어려서부터 탐험가가 되는 꿈을 꾸었다.
- ③ 그는 박물관에서 청소부로 일한 적이 있다.
- ④ 그는 대학 재학 중 화석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한 국 사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①

[해설] 가. 문무 관료전 지급(신문왕 7년, 687) → 나. 내외관 녹읍 혁파(신문왕 9년, 689) → 다.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 지급(성덕왕 21년, 722) → 라. 내외관의 월봉을 없애고 녹읍을 지급(경덕왕 16년, 757)

02. [정답] ①

[오답 분석]

- ② 상평창 제도가 고려시대 처음 실시된 것은 성종 12년(993)에 개경과 서경 및 12목에 창을 설치하면서이다.<손흥열>
- ④ 고려시대의 국가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원(上元), 즉 정월 15일(처음에는 2월 15일)에 전국적으로 열리는 연등회와 11월 15일[중동(仲冬)]에 개경에서 열리는 팔관회였다.<한영우> 고려에서는 연등회의 거행은 처음에 매년 1월 15일에 열렸다.<박용운, 이병희 등>

03. [정답] ③

[오답 분석]

- (가) 문과의 소과는 성균관 입학시험이기 때문에 소과에 낙방하면 원칙적으로 성균관에 입학할 수 없다.
- (라) 알성시(謁聖試)는 국왕이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행하여지는 성균관의 문묘석존례(文廟釋尊禮)에 참석한 뒤 명륜당에서 실시하는 부정기시험으로 특별시험이다. 조선초기에는 3품 이하의 현직 관료와 성균관 유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나중에는 지방 유생까지도 개방하였다.

04. [정답] ③

[해설] ① ② ④ 신석기시대

[오답 분석]

- ③ 공주 석장리에서 개모양의 석상, 고래, 멧돼지 등의 조각이 발견되었으며, 단양 수양개에서는 물고기를 새긴 선각화가 발견되었다.<한국사통론>

05. [정답] ③

[해설] ① 군사분계선을 양측의 접촉선으로 정하기로 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던 휴전회담은 포로교환 문제로 벽에 부딪혀 1년 6개월이나 끌었다. 미국은 포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르자는 자유송환을, 북한과 중국은 모든 포로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제송환을 주장했다. 미국이 자유송환을 고집한 것은 공산포로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공산주의와의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였다.<한국사의 이해>

06. [정답] ①

[해설] 상기 자료는 초기국가(연맹체국가)에 관한 것이다. ① 초기국가는 국가 경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군장귀족회의를 통하여 결정·집행하였다. 그러나 고대국가로 발전하면서 점차 군장귀족회의체에서 행정관부가 분화되어 갔으며 회의체가 가지는 역할이나 기능은 점차적으로 축소·분화되어 갔다.

07. [정답] ②

[해설] ㉠ 박문국을 세워 한성순보 발행(1883년) → ㉡ 경복궁에 전등이 처음으로 가설(1884년—7차 교과서, 1887—김인정 교과서) → ㉢ 서대문에서 청량리 사이에 전차가 개통(1898년) → ㉣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 창설(1908년)

08. [정답] ④

[해설] ④ 관등제에 있어서 고구려는 형(兄), 신라는 찬(滄), 사(舍) 등의 명칭이 있었는데, 이는 족장에 대한 우리 고유의 존칭에서 유래하였다. 이에 비해 백제의 술(率), 덕(德)은 중국식이다.

09. [정답] ③

[오답 분석]

- ③ 선종은 지방 호족들이 후원하였고, 소외되고 배움이 부족한 호족층 이하 서민층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옛 백제와 고구려지역에서 특히 성행했다. 이는 불립문자와 견성오도는 선종이 소박한 호족들의 체질에 맞았고, 전통적인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혁신성은 중앙집권적인 신라왕조에 반항하여 일어나는 호족들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한영우, 변태섭 등>

10. [정답] ①

[해설]

- (가) 이이의 이통기국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형체가 없고 기는 형체가 있기 때문에 이는 두루 통하고 기는 국한되며[이통기국(理通氣局)], 이는 작용이 없고 기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가 발하며 이가 타는 것[기발이승(氣發理乘)]이다.
- (나) 이항의 이기호발설이다.

- ① 이이는 주기론의 입장에서 관념적 도덕세계를 중요시하는 동시에, 경험적 세계를 존중하는 새로운 철학 체계를 수립하였다.<6차 교과서>

11. [정답] ③

[해설]

- ① 자유당 시절의 1950년대는 남한사회의 전통적 사회질서가 밑바닥에서 해체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 수백만의 북한 주민이 월남하여 남한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지도자로 부상하면서 양반문화의 권위는 급도로 붕괴되었다. ... 미국의 경제원조와 함께 홍수처럼 밀려들어온 미국문화도 남한사회의 가치관과 생활풍속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전통적 가치관을 해체시키면서 근대시민정신을 고양시킨 것도 사실이지만, 서양문화에 대한 숭배가 지나쳐서 전통을 총체적으로 비하하는 민족허무주의적 사고가 팽배함으로써 주체성의 상실을 가져왔다.<한영우>
- ② 사상계 창간(1953), 폐간(1970년 5월 김지하의 오적을 실었다는 이유로 폐간되었다), 사상계는 자유당 시절에 반독재의 선봉에 섰던 지식인층을 대변하는 잡지이다.
- 창작과 비평(1966년 창간), 문학과 지성(1970년 창간)
- ④ 민중사학은 특정계급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느끼고 바라는 역사를 의미한다. ... 민중사학의 재개과정에 대하여 조동걸은 그 연원을 1920년대 단재의 민중의식과 1930년대 백남운 등의 계급사관에 두고, ... 민중사학은 일련이 사회변혁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기존의 학문적 풍토에 대한 비판과 반대로부터 1980년대 이후 크게 진척되었다.<한국사학사 464>
- 전두환정부는 통치이데올로기로서 국수주의적 역사학을 선전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역사인식은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국민정서를 유도하여 체제유지에는 기여하였으나 건전한 민족문화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로서 젊은 학도들 사이에는 이른바 민중사학이 유행하여 역사인식의 양극화가 초래되었다.<한영우>

[오답 분석] ③ 1980년대에는 외형상 경제규모가 급속히 커졌으나, 빈부격차와 도시와 농촌의 갈등 그리고 지역갈등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산업노동자의 급증과 열악한 임금 및 노동환경에 따라 농민운동도 고개를 들었다. 이 시기 학생운동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민중으로 간주하고, 이들과 연계하여 민중사회건설을 표방하고 나선 것은 종전의 민족민주화운동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이제 민족, 민주, 민중을 합친 이른바 삼민 투쟁이 학생운동의 한 흐름을 형성하였다.<한영우>

12. [정답] ③

[해설] 상기 자료는 '도톨밤의 노래'로 고려말기 문인 윤여형의 시이다. 고려후기에 농업기술이 발전하고 인구가 늘고 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권문세가들이 농장을 늘리고 하나의 토지에 여러 명이 주인이라고 행사하며 조를 거두어 농민들은 도토리나 주워 먹으며 살아야 했던 비참한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③ 고려 말 시기는 국가재정이 파탄 상태였기 때문에 의창과 상평창 제도는 거의 허구화되어 있었다.

13. [정답] ④

[오답 분석] ① 활빈당의 대한사민논설 13조목
② ③ 갑오 2차개혁 시 홍범 14조

14. [정답] ④

[해설] ④ 조선이 곧 중화라는 조선 중화주의는 조선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시켜 우리 문화가 최고라는 국수주의를 팽배시켜 조선 문화의 전 분야에서 조선 고유문화 창달에 기여하게 되어 18세기 진경문화를 이룩하였으며 19세기 위정척사사상의 바탕이 되었다. 이 문화의 주도층은 서인계로 사상적 기반은 조선 성리학이었다.<정욱자>

15. [정답] ②

[해설] ㉠ ㉡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서 소유권 조사는 토지에 대한 하나의 소유권만을 인정하여 배타적인 자본주의적 사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그리고 경작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부분소유권(部分所有權)으로서의 도지권(賭地權) 등은 아무 보상없이 토지소유권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또한 토지의 화폐화가 이루어지고 일본자본의 자유스러운 활동 및 축적이 보장되었는데, 이는 동시에 조선 농민들의 몰락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고쳐쓴 한국현대사, 시민 한국역사>

[오답 분석]

- ㉢ 토지에 대한 민간 차원의 전통적 사유권은 개항 이전의 조선 사회에서도 성립되어 있었다. 개항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근대적' 사유권을 확립하여 지주 중심의 자본주의체제를 확립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은 그것을 '근대' 법적으로 완결지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사유권은 정밀히 조사되지 않았다.<강만길>
㉣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하여 일본인 대지주(大地主)가 증가하였고, 지난날의 양반지주들도 과거의 특권을 물려받게 되었다.<이기백, 한국사신론> 문제 9번 해설 참조.

16. [정답] ②

[해설]

- ㉠ 속종은 45년간 장기집권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당파연립 방식을 버리고, 봉당을 자주 교체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를 당시에는 환국이라 하였다. 환국정치운영은 말하자면 군주가 내각을 자주 교체하여 신하들의 충성심을 경쟁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이었다.<한영우>

- ㉢ 경신환국(속종 20년, 1680) 이후 정권을 잡은 서인은 정책 수립과 상대 봉당의 탄압 과정에서 노장세력과 신진세력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노론(이이와 송시열 계통)과 소론(성혼과 윤증 계통)으로 분열된다.

[오답 분석]

- ㉡ 영조의 탕평책은 봉당정치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강력한 왕권으로 봉당 사이의 치열한 다툼을 일시적으로 억누른 것에 불과하였다.<7차 교과서>
㉣ 영조는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자천권의 관행을 없앴다. 그러나 이조 전랑의 후임자 천거권은 정조 대에 가서야 완전히 폐지되었다.<7차 교과서>

17. [정답] ④

[해설] ④ 「조선봉건사회경제사」(백남운)

[오답 분석]

- ① 박은식 「한국통사」(박은식은 중국으로 망명하여 상해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역임)
② 신채호 「조선상고사」(신채호는 임시정부의 외교론을 비판하고 무장투쟁 주장, 무정부주의 주장)
③ 안재홍 「조선상고사감」(안재홍은 해방이후 국민당을 조직,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정치이념을 주장)
안재홍의 민족정기는 계급화해적인 불합철학을 주장하였다.

18. [정답] ④

[해설] ④ 전분 등급에 상관없이 1결당 조세액은 동일(1등전~6등전까지)했다. 토지 1결 면적은 다르지만 1결마다 생산량은 같기 때문에 연분 등급이 같으면 각 1결마다 부세는 일정한 것이다

[오답 분석]

- ① ② 연분 9등(풍흉의 정도에 따라 연분 결정), 전분 6등(토지 비척에 따라 전분 결정)
③ 전분 6등에서 1등전에서~6등전까지 1결의 면적은 절대면적(지가제)이 아니라 토지의 비척과 척박에 따라 상대면적(결부제)이 되었다.

19. [정답] ①

[해설] ㉠ ㉢ ㉣ 객주와 여각은 경향 각지의 포구, 큰 장시 등 상품 집산지에서 상품을 위탁받아 팔아주거나 매매를 주선하며, 도고로서 상품 도매와 그에 부수되는 창고업·숙박업·화물수송업·금융업(자금 대부, 어음발행, 예금 업무) 등을 겸하는 중간상인이다.<7차 교사용지도서>

[오답 분석] ㉡ 공납물품의 대리 납품업자는 공인이다. ㉢ 고공(머슴)

20. [정답] ④

[오답 분석] ④ 신해통공이란 사상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이었다.<김담택, 우리한국사> 신해통공이 1791년(정조 15년)에 실시되었다. 이를 계기로 도시 사상인층과 소생산자층의 활동이 한층 더 활발해졌으며, 시전상인을 대신해 사상도고가 상업계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이들 사상도고는 우세한 자본력과 조직망을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매점상업을 벌였다.<한국사의 재조명>

세법개론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③

[해설] (라)세액감면, (마)장기채권이자에의 분리과세, (바)간이과세제도는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만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이므로 조세평등을 저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02. [정답] ④

[해설] 우편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서류의 우편제출시 발송일의 추정가능하나, 송달서류에 대한 송달추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03. [정답] ①

[해설] 해산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해산하는 때에 성립한다.

04. [정답] ②

[해설]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해당되어 납부통지서를 받기 전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의 대금채무와 양도담보설정자의 피담보채무를 상계하였으면 양도담보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05. [정답] ①

[해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와 심사청구를 동시에 제기한 경우는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06. [정답] ③

[해설] 열람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07. [정답] ④

[해설] 채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08. [정답] ①

[해설]

- ②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평가증은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평가차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의평가증으로 본다.
- ③ 법인이 합병·증자·감자 등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분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익금으로 본다.
- ④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만 시가와 매입가격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

09. [정답] ②

[해설]

- ① 법인이 사용판매한 제품과 관련된 익금 또는 손금은 상대방이 구매의사를 표시한 날 또는 반품기한 및 특약기한 등의 경과로 판매가 확정된 날을 귀속시기로 한다.
- ③ 중소기업인 법인의 경우에는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을 통한 적용이 가능하다.
- ④ 장기유역매출의 경우에는 진행기준에 따라 해당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인도기준의 적용을 허용한다.

10. [정답] ④

[해설]

- ① 외국환은행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매매기준을 등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강제규정).
- ② 외국환은행은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에 한하여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매매기준을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계약체결일 현재의 매매기준을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외국환은행 이외의 법인은 환위험회피목적의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에 한하여 이에 대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조건부 임의규정).

11. [정답] ③

[해설]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사유(정기선정사유)이지 추계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12. [정답] ③

[해설]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13. [정답] ③

[해설] 인정배당도 법인단계에서 가산조정을 통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개인주주에게도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종합과세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이중과세조정이 적용될 수 있다.

14. [정답] ④

[해설]

- ① 거주자의 논·밭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 ② 1주택만을 보유한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도 고가주택 및 국외소재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농어민의 축산을 제외한 농가부업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에 대하여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15. [정답] ③

[해설]

- ㉠, ㉡, ㉢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된다.
- ㉢ 3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2주택의 1주택의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주택으로 의제될 수 있다.

- ㉔ 취학, 질병 또는 근무상 형편을 원인으로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1년 이상은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6. [정답] ④

[해설]

- ① 임치물과의 반환을 수반하는 창고증권은 재화에 해당한다.
- ② 건설업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③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이 완료된 물품을 다시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17. [정답] ③

[해설]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8. [정답] ②

[해설]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그대로 판매하는 때에는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 중 해당 부분에 대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9. [정답] ④

[해설]

- ① 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시에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시 제외한다.
- ②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폐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까지를 확정신고기한으로 한다.

20. [정답] ③

[해설]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2,000만원으로 한다.

회 계 학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①

[해설]

- 미래영업을 위하여 발생하게 될 비용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 사채발행시 유효이자율에 의해서 사채를 평가하므로, 사채발행 후 시장이자율이 변동해도 역사적시장이자율에 의해서 사채를 평가한다.
- 어떤 의무에 대하여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 이행하여야 하는 전체의무 중에서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인식한다.
-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회수되는 매출채권은 보고기간 후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02. [정답] ③

[해설] 단기매매금융자산은 취득 부대비용은 당기손익 처리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고, 배당수익은 순자산에 증가시키게 된다.

03. [정답] ③

[해설] 기말상품재고액 : 1,000,000원 + 150,000원 + 120,000원 = 1,270,000원

선적지인도조건의 미착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며, 매입자가 매입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시송품(200,000원-80,000원)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할부판매상품은 대금이 회수되지 않았더라도 판매시점에 판매자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04. [정답] ④

[해설] 감자차손 발생(취득원가)액면금액)시 감자차익에서 먼저 상계처리하고 나머지는 감자차손으로 처리한다.

(차) 자본금 5,000,000원 (대) 현금 6,000,000
감자차익 300,000원
감자차손 700,000원

05. [정답] ②

[해설]

-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 800,000원-400,000원+300,000원 = 700,000원
- 기말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
 $80,000,000원 \times 1\% = 800,000원 - 700,000원 = 100,000원$

06. [정답] ④

[해설]

- 가중평균법에 의한 원가율 : $4,200,000원 / 6,000,000원 = 70\%$
- 따라서 기말재고상품의 원가 = $1,000,000원 \times 70\% = 700,000원$

07. [정답] ④

[해설]

- 재고자산 평가손실 : $(1,000원 - 850원) \times 400개 = 60,000원$
- 재고자산 감모손실 : $100개 \times 1,000원 = 100,000원$

08. [정답] ④

[해설]

- (기초재고 20,000원 ↑ = 순이익 20,000원 ↓)
(기말재고 30,000원 ↓ = 순이익 30,000원 ↓)
= 재고자산에서(총순이익 50,000원 ↓)
 - (전기감가상각비 50,000원 ↑ = 순이익 불변)
(당기감가상각비 70,000원 ↓ = 감가상각비에서 순이익 70,000원 ↑)
- 이므로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총 20,000원 과대계상.

09. [정답] ①

[해설] 2016년초 건설기계의 처분이익 : 550,000원 - 300,000원 = 250,000원

10. [정답] ②

[해설]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며,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장시키기 위한 질적특성이다.

11. [정답] ③

[해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나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이나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든지,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배열하든지 여부는 보고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12. [정답] ④

[해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13. [정답] ①

[해설]

- 매출액 800,000원
- 대손상각비 (4,000원)
- 외환차익 5,000원
- 매출채권(순액)의 증가 (10,000원)
- 선수금의 감소 (3,000원)
- 고객으로 부터의 유입된 현금액 788,000원

14. [정답] ①

[해설]

- 사채발행가액 : $(100,000원 \times 0.63) + (100,000원 \times 5\% \times 4.6)$
= 86,000원

구 분	기초 BV	유효이자	현금이자	상각액	기말 BV
2014.1.1.	86,000원	6,880원	5,000원	1,880원	87,880원
2014.7.1	87,880원	7,030원	5,000원	2,030원	89,910원

∴ 사채상환손실 : 89,910원 - 98,000원 = -8,090

15. [정답] ③

[해설]

- 가공원가완제품환산량 = 680단위 + 80단위 × 60% + 300단위 × 50%
= 878단위
- 공손은 공정 60% 시점에 발견되므로 정상공손품의 환산량은 60%로 계산된다.

16. [정답] ①

[해설] 직접노동시간 × 150시간 = (700,000원 - 40,000원)

17. [정답] ③

[해설] 과소배부는 실제보다 적게 배부되므로(실제제조간접비>예정배부액), 비용을 더 증가시켜야 하므로 매출원가와 기말제품 그리고 기말재공품에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하였으므로, 모두 증가하고 당기 총제조원가는 무관하다.

(차) 재 공 품 300 (대) 제조간접비 배부차이 900
 제 품 300
 매출원가 300

18. [정답] ③

[해설]

- 2014년 기말재고수량 :
 $\text{기초}(0\text{개}) + \text{생산량}(12,000\text{개}) - \text{판매량}(10,000\text{개}) = 2,000\text{개}$
- 2015년 기말재고수량 :
 $\text{기초}(2,000\text{개}) + \text{생산량}(14,000\text{개}) - \text{판매량}(15,000\text{개}) = 1,000\text{개}$
- 변동원가계산이익(500,000원) -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비($90,000\text{원} \times 2,000\text{개} / 12,000\text{개} = 15,000\text{원}$) +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비($98,000\text{원} \times 1,000\text{개} / 14,000\text{개} = 7,000\text{원}$) = 전부원가계산이익(492,000원)

19. [정답] ③

[해설]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또는 범칙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이 몰수 한때에 그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벌금 등이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20. [정답] ②

[해설] 국고수입은 재원의 조달 및 이전 항목으로 중앙관서 및 기금의 순자산변동표에만 표시된다.